

국가 판타지와 가족의 굴레:

월북자 가족의 남한 국민되기*

이수정**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남한의 분단 정치가 반공국가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월북자 가족들을 오히려 어떻게 순종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주체,’ 즉 반공국가의 충성스런 국민으로 생산해 내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국가 판타지’와 ‘가족 담론’이 이러한 주체형성의 과정에서 주요한 문화적 기제로 작동하였음을 논의한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결과 군사정권이 몰려나면서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폭력적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민주적 투표로 선출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도 이러한 증언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월북자 가족들의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Making and Unmaking the Korean National Division: Separated Families in the Cold War and Post Cold-War Eras”(한민족 분단 만들기와 허물기: 냉전과 탈냉전시대의 이산가족)(2006)의 일부분을 학술지 기고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논문의 기초가 된 현장연구는 SSRC(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공적 장에서의 가시화는 상대적으로 아주 늦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시화 자체도, 월북자 가족들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2000년 남북한 정부가 '민족화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산가족 상봉' 공간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 월북자들이 남한의 가족을 찾은 결과 — 이루어졌다. 이 글은 월북자 가족의 이러한 오랜 '침묵'을 남한 분단정치의 효과이자 근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들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남한의 분단정치가 월북자 가족을 순종적이고, 또 많은 경우, 적극적인 국가주체로 형성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월북자 가족의 침묵이 '공포의 문화'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반공을 모토로 한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몽환적 적의 생산 및 처벌과 월북자 가족들의 국가 판타지 사이의 상응적이고 다이내믹한 관계에 의해 유지되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필자는 '단순한 환상의 구성물 (illusory construction)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현실의 형태(form of reality)이며 그 구조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라는 베고냐 아레사가의 '판타지' 개념을 차용한다. 판타지는 또한 실재와 상상 태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 위치하며, 기대와 욕망을 시사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아레사가는 우리가 국가를 단순히 지배의 이성적 도구로 볼 것이 아니라 판타지에 의해 매개된 '과잉의 주체'로 볼 것을 제안한다 (Arexaga 2000a; 2000b; 2003). 이러한 '판타지' 논의는 분단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실재와 상상의 '빨갱이'를 민족의 적으로 생산하고 처벌하였던 권위주의 시대 남한 국가의 담론과 실천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북한과의 대적상황에 있다는 '위기상태'를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담론과 실천은 정치적 비판자를 전복세력으로 간주하여 억압하고 월북자 가족을 적의 가족으로 차별하였다. 동시에, 국가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권력이자 지속적인 위협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월북자 가족의 국가에 대한 판타지 또한 이들이 스스로 부과한 침묵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 판타지를 국가의 판타지 — 우리가 ‘공산주의자’ 혹은 ‘빨갱이’의 낙인을 찍는 공식적 국가담론과 국가의 에이전트들의 실천에서 알 수 있듯이 — 와 남한 국민의 국가권력에 대한 판타지라는 양자의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자가 남한 국가 권력을 실현하는데 있어 지배의 이성적 기술(*rational technologies of control*)을 경시하고자 함은 아니다. 학교 교육이나 언론은 시민들을 훈육하고 국가권력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도구였으며, 다양한 경찰 시스템과 법도 또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 기술의 동원에 바탕이 된 것이 몽환적 적의 생산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동시에 이러한 경찰 시스템과 법들은 실재적이거나 상상의 적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정당화했다. 예를 들어, 아직 실재하고 있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모든 반국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삼는다. 이 법의 공식적 목적은 ‘국가 안보 및 모든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함’에 있다(국가보안법 제 1장). 이 법은 ‘헌법이 보호하는 시민의 기본권리를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위기상황에서 적으로서의 ‘빨갱이’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되는 몽환적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적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하는 다른 경찰 시스템과 법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법과 경찰의 임의적인 폭력은 벤야민(Benjamin 1978)이 ‘괴기한 공간으로서의 국가’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해 내었다.

필자는 월북자 가족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두렵고 동시에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권력으로서 존재해 온, 그리고 스스로 부과한 침묵 뒤에 숨어 있는 근본적 힘으로 존재해 온 이러한 국가라는 괴기한 존재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이 근본적 힘이 되는 것은 월북자 가족이 생산하는 국가에 대한 내러티브가 월북자 가족들의 주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라는 괴물은 물질적 효과를 가진 내

러티브를 통해서 생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목적은 어떻게 지배의 이성적 기술이 적과 국가에 대한 판타지 위에서 구성되어 왔으며, 동시에 그러한 판타지를 강화시켜 두렵고 순종적인 주체들을 생산해 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또한 월북자 가족을 두렵고 순종적인 주체로 형성하는 데 매개가 되는 중요한 문화적 제도로 가부장적 가족을 살펴본다. 월북자 가족의 경우 특이한 점은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특정한 정치적 위치를 획득하게 되는 이유가 자신들의 의지나 행위가 아닌 월북한 ‘빨갱이’와의 가족관계 때문인 것이다. 월북자 가족들이 남한 사회에서 위험하다고 간주되었던 이유는 남한사회에서 가장 근본적 사회단위로 인식되는 가족의 문화적 위치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충성심은 어떤 이념적 결연이나 충성심도 쉽게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월북자 가족들에 대한 박해는 가족이 국가권력이 가장 위태로운 곳이라는 국가 에이전트들의 인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법적, 문화적, 강제적 테크놀로지를 동원하여 가족을 통제하려 노력하였다. 월북자 가족들도 가족이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족이테올로기에 기반한 국가의 박해를 문제 삼기보다는, 공적 공간에서 월북자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사적 공간에서 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협상하는 수동적 모습을 보여 왔다.

2. 연구방법

이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0년 6월부터 8월까지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전후한 2개월 동안 14명의 월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기록의 일부분이다. 필자는 1997년 6월부터 1999년 8월, 2000년 5월부터 8월까지 한민족 분단과 분단주체의 형성에 관한 박사논문을 쓰

기 위하여 서울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관련 현장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행한 월북자 가족들과의 인터뷰 내용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사용하였다.

본문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이들 월북자 가족들은 ‘반공’을 국시로 하던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적의 가족’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침묵당해왔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따라서, 2000년 남북화해 무드가 생기기 이전에는, 논문을 위한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월북자 가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1998년, 개인적 연줄망을 통해 가까스로 만난 두 명의 월북자 가족들은 부분적으로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면 서도 논문에 인용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그러던 중,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월북자 가족들 중 일부가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 중 일부는 북의 월북자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해 와서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경우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상봉 신청을 하거나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경우이다. 필자가 인터뷰한 월북자 가족들 중 3명은 2000년 8월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가족을 만났고 나머지 11명은 상봉 신청을 하였지만 만남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필자는 이들 중 12명을 서울의 적십자사에서, 나머지 2명은 이북오도회관에서 처음 만났다. 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신청 및 상봉자 명단 확인이 이루어지던 곳이고 이북오도회관은 상봉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필자가 현장연구를 수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상봉신청을 하러 온 이산가족 중 일부는 신청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연락처와 헤어질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을 도우면서 필자는 신원을 밝히고 1차적인 인터뷰를 실행할 수 있었다. 이후 개인당 1차례, 많으면 5차례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전후해서 이들의 집이나 음식점 등에서 후속 인터뷰가 이어졌고, 상봉을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상봉장

주변에서의 참여관찰도 실행할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은 생애사와 인터뷰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 대한 해석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 논문의 기초가 된 월북자 가족들의 내러티브가 전체 월북자의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특별하다고도 할 수 있다. 2000년 여름이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어 민족의 화해를 드디어 이뤄낸 듯 유폴리아적 상황이긴 했지만, 이 당시에도 공적으로 월북자 가족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필자가 만난 월북자 가족들 중에서도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글에 소개된 월북자 가족들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고, 필자와의 인터뷰는 물론 논문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필자는 이들의 이야기가 많은 월북자 가족들의 경험과 공명함을 확신하긴 하지만 대표성을 주장하지는 않으려 한다. 또한,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세상에 대한 해석을 나누는 데에는 가까이 동의하면서도,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공포로 인해 구체적인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월북자 가족들의 뜻을 반영하여 이 논문에서는 가능한 한 이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이름을 가명처리하였음을 밝힌다.

3. 빨갱이의 사회적 이미지, 적이라는 판타지

1969년부터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6년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라진 이승복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반공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 중 하나였다. “승복아, 나는 여전히 네가 제비처럼 노래하는 목소리를 듣는데, 너는 어디로 간 것이니? 우리는 자라나서 반드시 너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로 시작하는 이승복의 이야기는 간

첩이 얼마나 잔인하게 어린아이인 이승복을 죽였는지 — 예를 들어, 입을 찢어 —,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승복이 얼마나 굳건하게 이에 저항했는지 —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며 — 를 자세하게 묘사하여 이를 읽는 학생들에게 ‘잔혹한 공산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이러한 비인간적 공산당에 대한 저항의식을 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야기 뿐만 아니라, 빨갱이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생산하는 다음과 같은 수많은 표어와 포스터도 거의 모든 사회적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처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간첩은 표시였다. 너도나도 살펴보자
한순간의 좌경사상 후손들의 눈물된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반공주의는 남한의 지배적 국가 이데올로기였으며 국민도덕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Cho 2000). 따라서, 도덕교과서가 반공주의를 촉진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반공 표어와 포스터가 산재해 있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 표어, 포스터들이 반공주의에 기반한 남한의 집단정체성을 강화하는 국가의 테크놀로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정부는 파괴적인 한국전쟁의 아픈 기억을 끊임없이 환기시킬 수 있었고 북한 공산당들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다소 아이러니컬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남한사회는 ‘빨갱이’에 대한 담론과 이미지로 뒤덮여 있었다.

빨갱이에 대한 담론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잔인하고’, ‘파괴적이며’, ‘반민족적이고’, 그리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재현되었다. 이들은 또한 치명적인 질병이자 악마적 존재로 묘사되었고, 늑대나 뿔 달린 괴물로 그려지곤 했다. 또한 ‘빨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강력한 증오와 경멸의 느낌을 담은 인종화된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에 못 미치고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종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들은 ‘때려부수고’, ‘죽여서’, ‘궤멸시켜야 하는’ 대상이었다. ‘빨갱이’ 담론은 폭력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전형적으로 남성적이었다. 이승복 관련 도덕교과서 내용은 빨갱이들의 잔인함과 비인간성에 대한 극단적 강조가 어떻게 이 이야기 자체를 극도로 폭력적으로 만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 간첩에 의해 9살짜리 남자 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초등학교생인 독자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공포를 일으키도록 디자인되었다. 이 이야기는 ‘빨갱이’는 순진무구한 어린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없는 괴기하고 비인간적인 존재임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하나도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을 파괴할 진심어린 욕구로 가득찬’ 반공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

‘빨갱이’는 악마같은 존재로 재현되는 동시에, 사악하고 능력있고 강력한 — 아마도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 존재로 그려졌다. 그들은 ‘표시도 없고’ 따라서 원하는 대로 남한사회에 잠입할 수 있고, 전염성이 강해서 남한사람들의 몸에 ‘좌익사상’을 심을 능력이 있으며, 남북한 사이의 엄격한 국경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빨갱이’들의 잔혹함과 편재능력은 남한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의 침투와 전염에 대해 대비하고 그들을 ‘찾아’ ‘분쇄’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의 지속적인 ‘위기 상황’은 이러한 빨갱이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에 의해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아레사가가 “기다림의 시간성”(temporality of waiting)이라고 지칭한 상태가 남한 사회를 구조화하게 만들었다(Arexaga 2001: 141). 이 개념으로 아레사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과 불안이 장기화된 순간’을 뜻하며 이러한 순간에 ‘판타지가 변성한다’고 주장한다(141). 남한의 경우,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성’은 빨갱이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상징하며 이 시간성 속에서 국민들은 ‘구별되지 않으면서 위협적인 빨갱이’를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찾아 제거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

재하면서 동시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빨갱이’는 공포와 강박의 대상이 되었다.

‘빨갱이’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반공주의 남한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생산되었으며 국민들에 대한 국가 폭력의 정당성 기제로 작동하였다. 제구 4·3 사건에서의 남한국가폭력의 정치적 테크놀로지를 분석하면서 김성례(Kim, S. 2002)는 빨갱이의 몸이 남한 반공국가의 모태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였다. 남한 국가의 형성 자체가 ‘빨갱이’의 괴멸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고, 따라서 ‘빨갱이’는 남한 국가 건설에 필수적 요소였다는 것이다. 김성례가 생생하게 보여주듯이, 공산주의자로 이름 붙여진 사람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빨갱이 사냥’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반공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우익지배세력들은 미군정의 지지를 얻어 반대파를 찾고 고문하고 죽였는데, 그 죄목이 많은 경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연계된 ‘빨갱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빨갱이 사냥’은 남한국가가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욕망과 1980년대 후반 상대적 민주화를 이루기 전 권위주의 정권의 합법성을 유지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인해 지속되었다.

앞서 언급한 ‘빨갱이 사냥’의 공간은 아레사가가 ‘허구적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허구적 현실은 대개 ‘괴기하고 환상적인 적’에 의해 정의되며 그 안에서 실재와 비실재의 구분은 불가능해진다 (Arexaga 2001:142). 한국전쟁과 간첩 사건 등에서 보듯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은 실재하였다. 따라서, ‘빨갱이’ 관련 국가의 행위 중 일부는 이러한 실질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동시에, 내부적 적의 생산과 이를 외부의 적인 북한과 연결시키는 작업 또한 남한국가의 생산과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부적 적들이 필요했고, 비판세력들을 ‘친공’이라는 죄목을 붙여 정기적으로 체포, 고문,

차별함을 통해 ‘빨갱이의 실재’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빨갱이 사냥’에 서는 ‘진짜’와 ‘조작되거나 상상된 빨갱이’ 사이의 경계가 매우 흐릿하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빨갱이’와 국가권력 양자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일으켰다. 이는 ‘빨갱이’가 국민들 사이에서 특정한 이미지로 각인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비인간적이고 역량 있는 ‘빨갱이’의 괴기한 이미지가 국가의 모방적 위반(mimetic transgression)을 불러일으키고, ‘빨갱이’로부터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시켰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빨갱이’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는데 왜냐하면 국가의 ‘빨갱이 사냥’ 행위가 국민들에게 북한 공산당의 힘과 남한사회에서의 빨갱이들의 편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모든 남한 국민이 이러한 국가폭력의 잠재적 대상이긴 했지만, ‘빨갱이’ 카테고리보다 쉽게 묶일 수 있는 집단 몇몇이 특별히 존재했다. 이제 월북자 가족이 이러한 특별한 그룹 중 하나로 생산된 과정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4. 오염된 존재로서의 월북자 가족

월북자 가족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으로 갔다’는 사실로 인해 남한 사회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과 가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한사회에서 특별한 정치적 위치에 놓여왔다. 달리 말하면, 월북자 가족이 남한사회에서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는 이유는 (a) 북으로 간 사람과 가족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b) 북으로 간 그 가족 구성원이 반공 담론 속에서 ‘빨갱이’로 간주되기 때문이었다.

월북자 가족들은 북으로 간 가족 구성원과 혈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쁜 사상’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간주되었다. 또한 이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언제라도 접촉하여 남한사회에 치명적

질병인 ‘빨갱이 사상’을 퍼뜨리고 중요한 정보를 북한에 내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의심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늘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가족이데올로기이다. 17세기 말 조선 후기부터, 가족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자 권력자들이 사회를 다스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제도로 작용하여 왔다(Haboush 1991; Deuchler 1992).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 친족제도는 공유된 연대기(biography)와 상호 간의 연대에 대한 이해에 의해 매개된 공유된 생물유전학적 성분(shared biogenetic substance)을 통해 구성되어왔다(Marshall 1977; Schneider 1968; Williams 1995). 그러한 의미에서 친족은 생물학(biology)과 연대기(biography)의 교차점에서 구성되는 문화적 생산물이다. 이 때, 공유된 성분의 창조가 특히 중요한데, ‘피’는 한국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종류를 창조하고 결정짓는 데 주요한 신체적이고 상징적인 성분이다. 전통적 가족 개념은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것으로서 가부장을 필두로 하여 혈연관계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생존과 사회적 이동의 기초 단위로서, 가족구성원들은 공동의 운명을 갖는다고 간주된다(Abelmann 2003; Chang 1997).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독립적 개인이 아니고, 가족의 구성원이다. 개인의 몸은 가부장적 가족이라는 몸의 연장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가족의 몸의 부분으로서 개인은 다른 구성원들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된다.

피가 공유된 성분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빨갱이는 혈연을 통해 오염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다른 종족’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빨갱이에 대한 인종화된 담론의 기초가 된다.¹⁾ 또한 혈연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효성에 대한 담론은 반공주의 국가에게 ‘빨갱이’와 그 가족에 대한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국가가 혈연에 기반한 친족의 유대를 관리하

1) 빨갱이에 대한 인종화된 담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im S.(2002)를 참고하라.

기에 무력하게 느껴지게 함으로써, 월북자 가족의 충성심은 쉽게 의심 받은 것이다. 국가는 언제나 이 사람들의 ‘빨갱이’와의 혈연관계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 강할 것이라고 의심하며,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이미지는 남한 사회에서 월북자 가족을 차별해 온 효과적인 규율기제인 연좌제의 기초가 되었다. 연좌제는 ‘반국가적’ 행위나 감정을 가진 사람들 — 주로 ‘빨갱이’로 간주되는 — 의 가족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거나 공무원 등의 사회적 영역에서 배제하고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경찰제도로서, 개인보다는 가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규율 메커니즘이었다. 월북자 가족들은 북으로 간 가족과의 ‘혈연관계’로 인해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에 가장 적절한 존재였다. 그들은 또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반공주의와 관련된 법의 주요한 타깃이기도 했는데, 이들 법들은 그 조항의 모호함과 적용에 있어서의 자의성으로 악명이 높은 법들이었다.

북으로 간 가족과의 친족관계 이외에도, ‘월북’이라는 행위가 금지된 공간으로의 이동 — 즉, 위반 — 이며 이를 실행한 사람을 ‘빨갱이’라고 의미화 하는 과정이 월북자 가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인 것이었다(조성미 2001; 김귀옥 2004). 우리가 흔히 실향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사회적·정치적 위치와 대비하면, 이러한 의미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향민들도 북에 가족을 두고 있지만, 북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 의해 오염되거나 접촉될 수 있는 잠재적 적이라고 분류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경계 넘기의 방향과 그 방향과 관련된 ‘가정된’ 자발성(agency)이 국경을 넘은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사회적/정치적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족관계만큼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실향민이나 월북자들의 경계넘기는 실향민과 월북자 가족에 대한 남한 국가의 분단정치 전에는 완전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 즉, 실향민과 월북자들이 경계를 넘을

당시에는 경계 자체가 어딘지 명확치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설사 어떤 경계를 인지했다 할지라도 그 경계가 영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이들의 이동을 촉진한 동기와 환경 또한 다양했다. 그러나, 분단이 공고화됨에 따라, 그들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다른 한쪽에 도착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과 다른 한쪽에 남은 가족들의 사회적, 정치적 위치를 고정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월북’(북으로 넘어 감)은 단지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며 이러한 해석은 남한 국가 형성의 맥락 — 즉, 반공주의 국가 건설의 과정 — 에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월북은 단지 ‘북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월북’이라는 단어는 국가의 적인 ‘빨갱이’라는 단어와 결합되며, ‘빨갱이’로 이름 붙여진 월북자들의 가족들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된 것이다. ‘월북’ 담론에서 월북자에게는 엄청난 자발적 힘(agency)이 부여되며 — 즉, 그들은 북행을 ‘선택’했다 — 반면 월북자 가족들은 월북자들에 의해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그러나 여전히 위협한,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때문에, 필자가 인터뷰한 월북자 가족들은 2000년 이산상봉 이전에는 아무도 스스로 ‘월북자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을 위태로운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월북자 담론’에 포섭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사실, ‘월북자 가족’이란 명칭 자체가 ‘월북자 가족’들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월북자 가족들을 국가에 잠재적인 적으로 위치지우는 남한의 분단 정치의 효과로 생산된 것이다.

5. 기억과 망각의 의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월북자 가족들은 오랫동안 국가의 위협 천만한 적의 가족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기억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남한의 역사나 공식적 기억과 합치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기억은 스스로를 남한사회에서 적절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였다. 동시에, 월북자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월북자 가족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차별의 근원인 반공주의나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보다는 ‘빨갱이’ 가족의 흔적과 위협한 기억을 지우는 쪽을 택했다. 그들 대부분은 ‘빨갱이 가족’이 일정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따라서, 아픈 기억을 잊으려 애쓰며 그들의 가족 관계를 감추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한 일은 월북한 가족 구성원에 대해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월북자 가족들은 — 한 명을 제외하고 — 늦어도 1960년 중순까지는 월북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사망신고를 했다.²⁾ 이러한 사망신고는 공식적 영역에서 월북자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잊기 위한 가족의례의 한 구성요소이기도 했다.

한 월북자 가족, 김영현의 예를 들어 보자. 그의 형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징집되었다. 그는 2000년 여름 남북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위해 적십자사 사무실을 찾았고 필자는 거기서 그를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형의 생사에 대해 알기를 고대하면서, 그는 필자에게 그의

2) 필자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월북자 가족들은 1960년대에 월북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다. 그들은 당시에는 남한의 행정시스템이 영성했기 때문에 의사의 사망증명서 등 공식적인 서류 없이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예외적 한 명은 혹시라도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월북한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싶지 않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형이 “사실 호적에는 죽었다고 되어 있다”고 고백했다.

우리 어머니가 염려를 한 거지요 … 우리가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사망신고를 한 거예요. 사망신고를 하시고선 우리한테 형을 잊으라고 하셨어요. “네 형은 이제 죽은 거다” 하고 말이에요.

김영현의 어머니는 김영현의 형에 대해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존재를 지우고, 따라서 월북자 가족으로서의 자기 가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한 것이다. 그의 형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지우는 일과 더불어, 그의 가족들은 또한 그를 기억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였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형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분위기가 싸해졌지. 침묵이지 뭐.” 하고 김영현은 그 상황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망각’은 부분적인 것일 뿐 결코 완전하지 못했다. 그에게 형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주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종종 그의 형에 대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곤 했다. 따라서 김영현의 가족은 그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김영현의 얘기는 계속된다.

나한테 형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든가 … 그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지. 너네 형은 어디 있냐고. 그럼 난 6·25 때 전쟁 중에 죽었다고 하지. 형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외아들이라고 하고.

김영현의 형에 대한 사망신고나 거짓말은 둘 다 ‘월북자’ 형에 대한 거짓된 집합적 기억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공적 퍼포먼스였다. 김영현의 가족은 공적으로 남한국가의 적합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월북한 장남의 존재를 숨겨야 했던 것이다. 이렇듯, 이들의 공적 삶은 흔히 남한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중 하나인 가족관계를 숨김으로써 가능

했다. 오랫동안 남한 시민권의 핵심적 요소로 은유적 의미에서의 ‘한 핏줄’임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월북자 가족들이 남한 국민들과 ‘한 핏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북에 있는 자신의 가족과의 ‘핏줄관계’를 부정하고 단절해야 했었다는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이고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북으로 간 형의 생사를 모른 채, 김영현은 그의 모친이 돌아가신 1980년대 초부터 형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남한 사회에서 제사는 조상에 대한 효심의 표현이고 유교적 도덕의 주요한 요소이다. 또 다른 제사의 목적은, 자애로울 수도 악의적일 수도 있는 조상의 혼을 달래어 자손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많은 남한 사람들은 조상이 후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믿는다(Janelli & Janelli, 1992; Kendall, 1988). 그러나, 김영현의 형에 대한 제사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 뿐 아니라 불안감에 의해 조건지어진, 기억과 망각 양자를 위한 모순적인 의례 공간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김영현은 이미 망자가 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 형의 영혼이 평화롭게 안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김영현의 모친이 1960년대에 형에 대한 사망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1980년대 초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그는 형의 50번째 생일이 지난 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 때쯤엔 형이 돌아갔을지도 모른다고 싶더라구. 북에서는 오래 못 산다니까.” 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사는 기억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사가 그의 형의 죽음을 확인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망각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다.³⁾ 김영현이 제사지내기를 일정 정도 미루었다 하더라도, 필자가 인터뷰한 실향민들이 북의 가족들을 위해 제사를 시작하는 평균적인 시기보다는 훨씬 빨랐다.⁴⁾ 게다가

3) 조성미(2001) 또한 월북자 가족들이 제사를 통해 월북자들의 죽음을 확인하는 의례를 실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 필자가 인터뷰한 실향민의 대부분은 북에 남겨둔 가족들이 사망했음을 확신하기까지는 — 예를 들어 70이나 80살까지도 — 제사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가, 김영현이 2000년 그의 형과의 이산상봉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형의 죽음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김영현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문화적으로 적절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너무 일찍 제사를 지내는 것은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형의 사망을 확인하고 생존상태로 북에 있는 형에 대해서는 잊음으로써, 월북자 가족으로서의 불안함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 두 욕망 사이의 협상이, 그로 하여금 형이 50세가 되는 날을 기다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게 했던 것이다. 제사와 관련된 김영현의 ‘망각’은 남한사회의 ‘빨갱이’와 관련된 공포의 문화의 위력을 보여준다. 강제된 망각의 의례를 행함으로써, 살아있는 형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협의 느낌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자 한 것이다. 김영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형이 살아있고 간첩으로 왔으면 어찌나 ... 끔찍한 일이지. 그럴 땐 어떻게 해? 나는 그냥 형이 이미 죽었다고 확신했고 저 세상에서 편히 쉬길 빌었지.

그의 불안감은 남한 국가가 북한 간첩단 사건 — 이후 이들 중 많은 경우가 증거가 불충분한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 을 발표할 때마다 점점 커졌다. 정국이 불안정할 때마다 터져나온 남한 당국의 ‘빨갱이 사냥’ 의례는 월북자 가족들로 하여금 국가의 잠재적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북한 가족 구성원들을 감추고 잊게 만들었다.

분단체제 하에서, 월북자들에게 대한 월북자 가족들의 제사는 망각을 위한 공간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잊기 위한 기억하기”(remembering to forget)의 공간이었다. 제사는 월북한 가족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또 기림으로써 가족 간의 끈을 끊고 또 새롭게 창조하는 장이었다. 이러한 의례의 냉전적 형상은 분단 정치의 효과였다. 동시에, 이는 월북자들의 잠재적 저항가능성을 가로막음으로써, 냉전정치를 강

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제사는 월북자 가족들이 월북한 가족구성원들을 가정 내에서만 기억하게 했고, 따라서 서로에게서 고립시켰던 것이다.

동시에, 제사는 죄의식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김영현 등 2000년에 필자가 만난 많은 월북자 가족들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월북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제사를 지낸 데 대해서 ‘죄책감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죄의식은 월북 가족들을 부정하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면서 살고자 했던 데서 비롯된다. 또한 이는 월북자 가족들의 월북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망각’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월북자 가족들은 국가가 ‘빨갱이’와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공적 죄’를 피하기 위하여, 잊어야 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사적인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에게 커다란 긴장과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다.

6. 국가의 일상적 현존: 임의적이고 전지전능한 힘

1999년 가을, 통일부의 한 직원은 필자에게 최근 통일부에 항의전화를 한 한 월북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월북자 가족들 사이에 ‘피해망상이 가득하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남자의 아들이 여권발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방에서 근무하기를 원했음에도 후방에 배치된 이유를 월북자의 가족이기 때문으로 의심한다는 것이었다. 이 통일부 직원은 그런 일은 ‘민주화’ 이후 있을 수 없다며,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월북자들이 많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 이전 정부라면 그렇게 하지도 (즉, 전화를 걸어 따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었다는 증거지요” 하고 덧붙였다.

필자는 이러한 ‘피해망상’을 월북자들의 국가에 대한 판타지의 결과

물로 파악하며, 이러한 판타지가 남한 사회에서 분단 정치의 막강한 권력을 유지시켜 주는 기제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월북자 가족들은 월북자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러한 숨김이 위태롭고 부분적이며 평생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도 인지하고 있었다. 필자는 그들의 내러티브에서 월북자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노력해왔던 과정에 대한 기억과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는’ 국가에 의해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고통받았던 기억 사이에서의 동요를 느낄 수 있었다.

월북한 형의 이름을 지원서에 쓰지 않고 사관학교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최승찬의 경우, 10년 후 방첩대에 호출되었을 때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1966년 12월, 방첩대에서 지프가 와서 조사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1956년 (지원할 때) 가족조사에서 빠뜨린 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감이 왔지요.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걸렸구나 ….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서 최승찬은 월북한 그의 형이 1966년에 북한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그를 취조할 필요성을 느꼈음을 파악하였다. 방첩대의 책임자는 형이 간첩으로 넘어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승찬에게 월북자 가족임이 밝혀진 이상 이제 군에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어떤 경우로 10년을 더 군대에 머물 수 있었지만, 승찬은 지연되었고 방첩대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 나중에 제대를 하고 대학교수가 된 이후에도 그는 경찰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한 편지검열과 도청을 당했음도 확신하였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가 개인적인 편지를 통해서만 소통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찰이 파악하고 있음을 알았고, 전화를 걸 때마다 딸깍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그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 순간들

을 묘사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승찬의 이야기는 그의 개인적 기억과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견해를 월북자에 대한 국가의 박해이론과 연결짓는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걸렸구나” 등의 표현은 그가 국가가 언젠가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따라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져왔음을 나타낸다.

‘편재성’과 ‘전지전능함’은 월북자 가족에게 아주 보편적인 국가 이미지였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경찰이나 군대, 혹은 특수기관 종사자 등 국가의 에이전트들은 ‘어디에나 있고’ ‘무엇이든 알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 이미지는 전적인 통제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막강한 근원이었다. 또한 ‘기다림의 시간성’은 빨갱이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막강한 국가권력과 그 에이전트들에 의해 언젠가는 발각되고 처벌될 것이라는 월북자 가족들의 일상적 공포에 의해서도 작동하였다.

좌익 사상에 경도된 당시 고등학생이던 오빠가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월북한 경우인 남순희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월북자 가족의 국가에 대한 판타지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엄마가 우리 오빠 사망신고를 하고 다 잊자 했지. 그래도 맘이 편치를 않은 거야. 늘 불안했지. 그러다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거든 … 공무원 시험 말 이야. 시험 잘 봤다고 그랬는데 …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지 외삼촌 애길 안 했거든. 상상이 되요?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 연좌제에 걸렸구나. 아이고, 다 알고 있었어. 나라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남순희의 아들이 실제로 연좌제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닌지는 전혀 확증할 길이 없지만, 그녀는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월북한 오빠의 존재를 “나라에서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또 다른 월북자 가족 정동민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것이 공개되어 있었음에도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 경찰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씨는 자신의 이름이 “중앙정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음”을 확신했다. 그의 경험은 “나쁜 출신배경 그 자체로는 하급 공무원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하게 하였다.

남순희와 정동민의 얘기 중 누구의 이야기가 더 월북자 가족의 전형에 맞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월북자 가족들이 받은 박해는 그 경우와 정도가 다양했다. 부모가 모두 한국전쟁 중 월북한 동춘원의 경우, 그가 인지하는 유일한 직접적 박해는 1970년대에 “돈을 좀 벌어 보려고 월남 파병을 신청하였으나 떨어졌다”는 정도이다. 앞에서 소개한 김영현이나 또 다른 월북자 몇 명은 항시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했지만 직접 경험한 박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는 “피해 본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박해 이야기’의 진실성 여부는 ‘박해와 제한’에 관해 떠도는 이야기들이 월북자 가족들에게 빚어내는 끝없는 불안 — 통일부 공무원의 표현에 따르면 ‘피해망상’ — 에 비하면 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폭력과 위협의 임의성은, 국가 통제의 전면성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월북자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 상태 — 임의적인 박해에 대한 수동적 복종과 수용 — 에 빠지게 하였다 (Perelli, 1994, p. 45). 많은 월북자 가족들이 ‘빨갱이’ 가족들에게 금지되어 있다고 알려지거나 상상되어진 직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예를 들어 동춘원의 삼촌은 그를 초등학교까지밖에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빨갱이 자식은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을 들었다. 월북자 가족도 하급 공무원은 할 수 있다고 경험적으로 주장하던 정동민도 “외국 출장은 제한되었고, 그래서 한번 신청해 본 후에는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월북한 아버지를 둔 이성민은 장사를 업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되는 게 없다고 하니까. 공무원도 안 되고, 회사도 해외출장을 못 가니

안 되고. 그래서 일치감치 나는 장사나 해야겠구나 했어” 하였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월북자 가족에 대한 주요한 경찰제도인 연좌제의 경우, 한 번도 법적으로 공식화된 적이 없었다. 어디에서도 이 제도의 정확한 경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월북자 가족들은 한계를 알 수 없는 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처벌 제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사실이 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 사실, 국가는 그 모호함 때문에 더욱 강력해졌다. 국가의 권력은 널리 퍼져 있었으며, 그 모호성이 사람들의 불안함에 불을 지폈다. 월북자들이 의식하고 있던 국가권력의 모든 요소(전지적 관점, 모호한 경계, 그리고 국가 판타지에 기반한 폭력)가 월북자 가족의 공포를 증폭시켰으며, 이는 전체주의적 지배의 기반이 되었다. 국가지배는 빈틈없고 일관성 있는 전략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경계 없음과 편재성, 그리고 임의성에 의해 작동하였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호성은 월북자 가족들이 국가의 의미화 작업을 피할 수 있는 협상과 전략의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국가와 월북자 가족들의 서로에 대한 판타지의 근거로 작동했다. 국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짜 ‘빨갱이’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보다 모호적인 형태로 권력을 행사했다. 다른 한편, 연좌제와 다른 반공관련 법들 및 경찰 시스템이 명확한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어떻게 향해해야 할지 끊임없이 협상해야 했던 것이다. 그 결과, 공포가 사회적 공간을 지배하는 ‘공포의 문화’가 생산되었다.⁵⁾ 다음으로는 월북자 가족들의 소외와 공포가 그들을 적극적인 국가 주체로 생산해 낸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간다.

5)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공포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공포의 문화’에 관해서는, Green (1995)을 참고하라.

7. 국가주체의 형성: 반공국가의 모범적 국민되기

필자가 인터뷰한 많은 월북자 가족들의 경우, 월북한 가족들에 대한 감정은 양가적이었다. 월북자들은 공포와 원망의 대상인 동시에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월북자 가족들은 내적인 고통과 긴장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월북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불행한 삶에 대한 책임을 월북한 가족이 아닌 국가에 돌렸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받은 물리적, 심리적 피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국가폭력을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수는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월북자 가족에 대한 차별의 논리를 수용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월북자 가족들은 자신들이 ‘모범적인 국민’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하급 공무원이었던 정동민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한국전쟁 중 그의 아버지가 인민군과 함께 월북한 후, 그의 가족들은 국가 에이전트의 감시와 심문에 시달렸다. 그는 정기적으로 북의 아버지와 소통했는지에 대해 심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안기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음을 확신하였다. 그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종종 누군가가 집을 뒤진 흔적을 발견했으며 경찰로부터 자주 확인전화를 받곤 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정동민은 그러한 피해상황을 묘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지 눈물로 얘기하곤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한국사회의 이익을 지키려면, 국가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해요. 내가 정부의 관리였다 해도 똑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지.

그런 다음 그는 ‘평생동안 모범적 국민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

을 덧붙였다. 그는 국가지배의 효과적 수단인 ‘공공을 위한 국가의 책임’ 담론의 주체가 되었다. 비록 국가의 차별에 의해 고통받았지만, 그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모범적 국민으로 위치시켰다. 모범적 국민이 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끊임없이 의심받았던 그가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국민으로 포함되기 위한 전략이었다.

국가가 요구하는 주체가 되려는 이러한 노력은 많은 경우, 월북자 가족들이 — 특히 남성들인 경우 — 적절히 남성적이 되고 싶은 욕구와 함께 하였다. 여기는 필자는 ‘남성적’이라는 말을, 적극적이고, 강하고, 공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으로, 수동적이고, 약하고, 사적인 것은 여성적인 것으로 의미화되는 재현 시스템 속에서 ‘여성적’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상징적 레퍼런스로서 다룬다(Lugo 2000; Kelleher 2003). ‘빨갱이’ 관련 국가담론과 실천은 월북자 가족을 여성적 위치에 놓는다.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불안감을 갖고 소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여성화 과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남성 월북자 가족들의 반공주의 국가에 적절한 국민이 되고자 하는 노력에는, 적극적이고, 강하고, 공적인 존재, 즉 남성적이 되려는 노력이 수반되었다. 동춘원 씨의 경우가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낸다.

부모가 한국전 중에 월북하여 조부모와 삼촌의 손에 의해 자란 동씨는 하급 직업 군인으로 일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씨는 ‘빨갱이 자식’은 고등교육을 받아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삼촌의 확신 때문에 겨우 초등학교만 다닐 수 있었다. 동씨는 ‘빨갱이 아들’로서의 불안함과 거북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스스로 “늘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런 다음, 군대에 있을 때 자신이 “바른 사상을 가진 모범적 국민”임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야기하였다. 그에게 있어 “바른 사상을 가진 모범적 국민”이란 국가가 요구하는 건실한 반공주의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1980년대 ‘빨갱

이'로 간주되던 “운동권 학생들을 때려잡기 위해 선산에서 떡갈나무를 베어 수십 개의 몽둥이를 만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며칠 동안 이 몽둥이를 혼자 “손 다쳐 피나 가며” 만들어 상관에게 갖다주었다고 한다. 그의 과도한 남성성은 빨갱이 아들로써 겪는 소외와 배제의 느낌을 극복하고 자신을 반공사회에서 공적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확립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월북자 가족들의 소외감과 불안감은 그들을 강력한 반공국가의 주체로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반공국가가 요구하는 적절한 국가주체인 반공주의자로서의 자기구성(self-fashioning)은 심각한 자기모순을 동반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반공담론과 실천의 주요한 타깃이었기 때문이다.

8. 나가며

지금까지 필자는 월북자 가족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그들이 내재적 모순을 가진 분단주체로 생산된 과정을 논의하였다. 분단국가에서 남한국가의 적에 대한 판타지와 월북자 가족들의 국가에 대한 판타지의 다이내믹한 상호작용은, 월북자 가족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월북한 가족을 지우고 가정에서 ‘기억과 망각의 의례’를 수행하게 하였다. 월북자 가족들은 또한 반공국가에서 자신들의 가족역사의 부적절함에 대해 인지하고 경계를 알 수 없는 국가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살았으며, 스스로 반공국가가 요구하는 모범적 국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분단정치의 논리를 수용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 사이의 긴장에 더해, 이러한 모순은 이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안함과 고통을 야기했다. 평생 동안 겪었던 내면적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인터뷰 도중 많은 월북자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한

편, 이러한 긴장과 모순은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월북자 가족들이 월북한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스스로를 재인식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월북자들이 침묵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 역사적 공간은, 냉전 정치에 기반한 사회질서가 일정정도 불안정해지던 탈냉전 시기, 모처럼 남북 간의 화해모드가 절정을 이룰 시기였다.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거치면서 이념적 갈등이 그 시효를 다하고 ‘민족’과 ‘가족’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 ‘빨갱이’가 더 이상 공동체의 적이 아닌 듯 보였던 2000년 여름, 인터뷰에 응한 월북자 가족들은 마침내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내고 그들의 억압된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⁶⁾ 일종의 유포리아적 상황 속에서 일부의 월북자 가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월북자 가족임이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확신을 가진 듯 했다. “평생 ‘빨갱이’로 알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서 ‘빨갱이의 괴수’인 김정일을 만나 악수를 했다”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 상황에서 월북자들이 큰 저항 없이 오히려 영웅처럼 묘사되는 상황이 이들에게 ‘세상이 변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이 보기에, 이전의 ‘민주화’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였다. 민주화와 더불어 ‘억울하게 빨갱이로 오인받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복권의 대상이 되었지만,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진짜 빨갱이’들과 그 가족들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여름은 남북한이 드디어 이념대결을 넘어서서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 듯 보였고, 월북자 문제가 더 이상 남한 사회에서 금기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무엇보다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반갑게 만나는 장면과 월북자들이 남한으로 와서 문제없이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 이들에게

6) 2000년 여름의 지배적 담론의 변화와 월북자 가족들의 이러한 변화양상에 대한 해석 및 자기재구성에 관해서는 필자의 박사논문(Lee 2006) 3, 6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변화를 확신하게 하는 듯했다. 이러한 변화한 세상에 대한 인식 위에서 그들은 ‘월북자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월북한 가족과의 연결을 시도하며, 새롭게 자기인식을 해 나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공적으로 ‘월북자 가족’임을 드러내고도 남한 국가/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였으며, 월북한 가족들의 월북 이유 등을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도 보였다.

그러나 다수의 월북자 가족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하였지만, 이야기를 받아 적는 필자에게 “세상이 바뀐 거지요? 우리도 이제 뗏목이 밝혀도 되지요?” 하면서도 “그런 것까지 적으면 어떡해?,”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장모님이 다 답해주지 마라, 최소한으로 알려주라던데 …, 이름은 안 나가게 해 줘요” 하며 염려하였다. 최승찬의 이야기처럼, “국보법(국가보안법)도 그대로 있고, 북한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세월이 흘러 ‘분단정치’가 또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오늘날, 어렵게 입을 열었던 월북자 가족들이 다시 어떠한 방식으로 남한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협상하고 있을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논문투고일(2009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2009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2009년 12월 21일)

참고문헌

김귀옥

2004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서울: 역사비평사.

조성미

- 2001 “월북자 가족의 생활경험과 월북의 의미체계”, 한국산업사회학회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Abelmann, Nancy

- 2003 *The Melodrama of mobility: Women, talk, and clas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Aretxaga, Begoña

- 2000a “Playing terrorist: Ghastly plots and the ghostly state,” *Journal of Spanish Cultural Studies* 1(1): 43-58.
- 2000b “A fictional reality: Paramilitary death squads and the construction of state terror in Spain,” in J. A. Sluka, ed., *Death squad: The anthropology of state terror*.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2001 “Terror as thrill: First thoughts on the ‘War on Terrorism,’” *Anthropological Quarterly* 75: 139-153.
- 2003 “Maddening stat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2: 393-410.

Benjamin, Walter

- 1978 “Critique of violence,” in H. Arendt, ed., *Reflections: Essays, aphorisms, autobiographical writing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Chang, Kyung-Sup

- 1997 “The neo-Confucian right and family politics in South Korea: The nuclear family as an ideological construct,” *Economy and Society* 2(1): 22-42.

Cho, Hee-yeon

- 2000 “The structure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regime and its transformation: Statist mobilization and authoritarian integration in the anticommunist regimentation,” *Inter-Asia Cultural Studies* 1(3): 408-426.

Deuchler, Martina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reen, Linda

1995 “Living in a state of fear,” in C. Nordstrom & A. Robben, eds., *Fieldwork under fire: Contemporary studies of violence and survival*,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aboush, JaHyun Kim

1991 “The Confucianization of Korean society,” in G. Rozman ed., *The east Asian reg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Janelli, Roger & Janelli, Dawnhee

1992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Kelleher, William

2003 *The troubles in Ballybogoin: Memory and identity in northern Ireland*,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endall, Laura

1988 *The life and hard times of a Korean shaman: Of tales and the telling of tales*,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Kim, Seong-nae.

2002 “Sexual politics of state violence: On the Cheju April third massacre of 1948,” in M. Morris & B. de Bary, eds., “*Race*” *panic and the memory of migration, Hong Kong*, China: Hong Kong University Press.

Lee, Soo-Jung

2006 *Making and Unmaking the Korean National Division: Separated Families in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Lugo, Alejandro

- 2000 “Destabilizing the masculine, refocusing ‘gender’: men and the aura of authority in Michelle Z. Rosaldo’s work,” in A. Lugo & B. Maurer, eds., *Gender matters: Rereading Michelle Z. Rosaldo*,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Marshall, Mac

- 1977 “The nature of nurture,” *American Ethnologist* 4(4): 623-642.

Perelli, Carina

- 1994 “Memoria de Sangre: Fear, hope, and disenchantment in Argentina,” in J. Boyarin, ed., *Remapping memory: The politics of timespac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Schneider, David

- 1968 *American kinship a cultural accou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Williams, Brackette

- 1995 “Classification system revisited: Kinship, caste, race, and nationality as the flow of blood and the spread of rights,” in S. Yanagisako & C. Delaney, eds., *Naturalizing power: Essays in feminist cultural analysis*, New York & London: Routledge.

〈Key concepts〉: fantasies, state, state of emergency, state subject, culture of fear, wolbukcha family, family

Fantasies of State, Bonds of Family: Wolbukcha Family Stories

Lee, Soo-Jung*

This paper explores the stories of *Wolbukcha* families. It examines the ways in which South Korean division politics successfully produced *Wolbukcha* families as docile and active state subjects. By introducing *Wolbukcha* families'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ontinuous sense of surveillance and insecurity – their struggles to forget their families who went to North, conceal their identity as separated families, and become staunch anti-communists to prove that they are good citizens of South Korea – I illustrate how a culture of fear was produced with the mediation of the patriarchal family as an important cultural institution. At the same time, I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antasy elements in the process. I argue that fantasies of the state – both in terms of the state's fantasies about the enemy and people's fantasies of the state – were the basis and effects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Wolbukcha* families that produce *Wolbukcha* families as strong state subjects.

*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